

에너지 연구 세계 랜드마크 대학...창업 슈퍼엘리트 양성

한전공대 중간 용역 보고서 내용

학생 전원 학비·기숙사비 무료 제공
설립규모 줄어 지역 내 반발도 예상

한국전력이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공대의 밑그림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된 에너지 연구분야의 세계적 랜드마크로 설립하고, 에너지밸리에 특화된 전폭적인 창업지원으로 '창업 슈퍼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애초 예상과 달리 '작지만 강한 대학'을 표방하면서 설립부지와 학생수 등 규모가 축소돼 지역민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9일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무리한 외형 확보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적 존재가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작지만 강한 대학'이 설립방향성 원칙으로 설정됐다. 최고의 연구·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운영으로 대학의 발전가능성은 극대화하되, 한전 재무구조의 악영향과 국민세금의 과잉투입 요소를 방지하는 등 리스크는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설립부지 규모는 한전공대 캠퍼스와 산학연클러스터, 연구시설 각각 40만㎡씩 총 120만㎡로 애초 예상했던 150만㎡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학생수도 '소수정예 대학'을 모토로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총 1000명 수준이어서 광주과학기술원(GIST) 1943명과 포스텍(POSTECH) 3597명에 비해 역시 적은 수준이다. 최근 한전이 한전공대 설립 지연과 축소 논란을 겪었던 탓에 이번 용역 결과에 담긴 설립규모에 대한 지역 내 반발도 예상된다.

에너지밸리를 활성화하고 광주·전남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지만, 특정 지역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산업, 인류에 공헌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방향성도 담겼다. 우수학생과 교수 규모를 대폭 확대하지만, 대학들의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기존 대학 생태계 교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활용하는 '연합형 대학'도 설립방향성에 포함돼 있다. 타대학의 연구소와도 연계 협력함으로써 공동의 비전과 시너지 효과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특히, 한전공대는 인류의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인재와 생태계 변화를 주도하는 창업인재

육성이 교육목표로 설정됐다. 에너지밸리에 특화된 전문적이고 전폭적인 창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지역 내 창업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의 경우 창업기업수가 6개 광역시 중 최하위로, 전남 역시 제주를 제외한 8개 도 가운데 6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에너지 전문 창업교육·보육이 이뤄지고 투자자금과 창업인프라까지 제공된다. 여기에 한전 등 전력그룹사와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해외 투자자와의 교류 기회도 얻을 수 있어 대형 스타트업 탄생도 기대되고 있다.

이외 한전공대의 중점 연구분야는 미세먼지 저감기술과 우주태양광 무선전력 전송 등 미래 신기술 개발과 환경문제 대응, 인공지능(AI) 중심의 에너지 신기술 융·복합, 친환경 발전효율 향상기술 등 전통에너지 산업기술 혁신연구가 될 전망이다. 파급력이 높은 고난이도, 도전적인 연구에 집중해 에너지 기술장벽 돌파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집적화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한전공대 학사구조는 미래 에너지 기술인재 양성에 최적화된 '유연 학사구조'로, 학생 전원에게 학비와 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한다. 연구형 수재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미래 창업을 위한 지원도 펼치는 등 파격적인 학업·진로 지원을 통해 국내의 최우수 연구 인재와 창업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박기웅 기자 pbboxer@kwangju.co.kr



7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영록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남해안철도 고속화·흑산공항 등 37건 예산지원 요청

전남도, 민주 지도부 예산정책협의회
이해찬 대표 "관심 갖고 반영되도록 검토"

전남도는 더불어민주당에 한전공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업 37건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과 4건의 정책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7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예산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당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남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간사 등 새로운 당 지도부와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재 전남도지사, 지역위원장, 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흑산공항과 철도·항만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지원과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 대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계획 등 주요 SOC사업이 국가계획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해안 철도를 전철화해서 목포에서 부산까지 고속화 철도를 다니게 해 남해안경제공동권 기반을 깔아줘야 한다"며 "흑산공항도 2015년에 공항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400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계획이 변경 보류돼 중단된 만큼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구축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수산물 수출단지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등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재정분권 시 재정격차 완화 방안 마련과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원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첫 번째 시작하는 전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왔다"며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당 예결특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도 중요하지만, 전남은 새로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 중요하다"면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된 산업들, 에너지밸리나 전기자동차 등과 연관된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전남도에서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 통과돼서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올해 회기 중에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자금력 갖춘 2개사 공모 참여 사업 '청신호' 시민평가단이 직접 평가 투명·공정성 높여

어등산 관광단지 이번엔 착공될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주)호반과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광주시도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사업 추진에 의욕을 보임에 따라 장기 표류 중인 이 사업이 민선 7기 들어 본격화할 지 주목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골프장 이외에 관광단지를 조성할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2차 공모에서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최근 리소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레저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주)호반을 비롯해 국제자산신탁(주) 등 2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개발사업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시민평가단을 공개 모집했다. 시민평가단은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업체에 투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시민평가단은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한 지난 1차 공모와 달리 2차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맡게 될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차 공모를 통해 실제 자금력을

확보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면서 "시민평가단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과거 군 사격장이었던 광주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273만6000㎡)에 유원지와 체육 시설,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 사업자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 부지는 여태껏 빈터로 남아 있으며 27종 규모의 골프장만 완공돼 운영 중이다.

최대 변수는 일부 시민 단체와 주민의 반대다. 이들은 중소 상인의 피해를 우려하며 조성 사업에서 '유통 차별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 6기에 민간위원회를 꾸린 뒤 상가 시설 면적을 2만4170㎡ 이하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하지만 "상가 면적이 비좁아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국내 대기업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2차 공모의 첫 발을 댄 만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모두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규모 시설이 들어선 뒤 골목 상권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남도대표축제

문화관광육성축제

주요 프로그램

- 인도공주 상사와 야간퍼레이드
- 상사와 꽃길걷기
- 전국 산악인 등산복 꽃메시 선발대회
- 상사와 결혼식
- 상사와 전통 줄타기 공연
-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상사와 愛

빠져 아름다운 추억여행

제1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엑스포

10.11.~10.14.

영광 대마산업단지 e-모빌리티 연구센터

2018. 9. 13(목) ~ 9. 19(수)

주최/주관 :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추진위원회 / 집행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영광군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KSN

전남NRE

영광신재생에너지 주민협의체